‘지장본원경’ 원력 모아 최고의 지장성지로

12월 7일 선운사, 지장보궁에 황금경판 봉안


12월 7일 지장보궁 내에 황금경판으로 된 〈지장본원경〉이 봉안됐다.

1년 6개월간 새긴 41장 경판
석보체 양각·옻칠 후 금박 입혀
기도모임 회원들 승보공양도 진행

지장기도 성지로 꼽히는 고창 선운사 지장보궁에 황금으로 된 지장경판이 봉안됐다. 선운사(주지 법만)는 12월 7일 지장보궁에서 ‘지장본원경 황금경판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안법회에는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재덕 스님, 고창종합사회복지시설 관장 대원 스님,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 등 선운사 스님들을 비롯해 박승규 24교구 신도회장과 울산, 부산, 대구, 밀양 등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지장기도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대중들의 지장경 독송을 시작으로 관욕, 상단불공, 법공양, 승가공양, 축하공연, 관음시식 등으로 진행됐다.

봉안된 〈지장본원경〉 경판은 총 41장으로 옥천사 지묵 스님이 1년 6개월간에 걸쳐 새긴 것이다. 폭 40㎝, 길이 2m 80㎝의 은행나무에 17,096자의 〈지장본원경〉을 석보체로 양각했다. 지묵 스님은 제작기간 동안 직접 글자를 새긴 뒤 7번의 옻칠과 한 자 한 자 글자마다 금박을 입혔다.

원로 재곤 스님은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법문을 설하셨다 하더라도 보고 행하지 않으면 모두 부질없다”며 “열심히 기도하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생활에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경판 봉안불사에 동참해준 불자들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며 “지장기도 내지 참회기도를 통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미래까지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서 지장보궁 기도모임 회원들은 선운사 노후수행마을 원로스님들과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스님들께 승보공양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원로스님들은 이 공양금을 모두 어린이 포교와 복지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다시 고창어린이집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또 지장보궁 기도모임 회원들은 선운사 신도회와 함께 자비의 쌀 2,000kg을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봉안법회에 이어 지장전 앞마당에서는 최근 음반을 발간한 백양사 수안 스님, 국악인 김영임, 가수 한태진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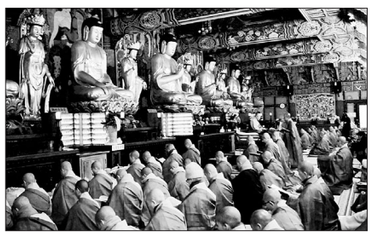
한편 선운사 지장보궁에서는 매 주말마다 지장기도 철야정진이 진행된다. 이날 법회에 이어 지장천일기도 중 400일기도 입재식도 함께 봉행됐다.



선운사 신도회의 자비의 쌀 전달식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10일 대적광전에서 불기 2558년 갑오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제4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포살법사로 나선 성우 스님은 89명의 동참스님들을 향해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라”며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포살법회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화림선원에서 열린 17교구 교구종회는 불기 2559년도 주요 종무계획안과 예산계획안의 승인에 이어 2558년도 말사 종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외계층아동 초청 사찰음식 체험전



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지원)과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을 초청 사찰음식 체험전을 개최했다. 이날 체험전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로 진행됐다.

강의를 진행한 이승환 국장은 “사찰음식의 정신을 이해하며 생활에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수 있도록 진행했다”며 “아동들 입맛에 맞게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 영양바와 연잎밥 등을 함께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주지역아동센터 설민자 센터장은 “웰빙음식인 사찰음식 체험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손쉽게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2015 봉축, ‘견우와 직녀’ 주제로

광주불교연합회 12월 9일 세월호 아픔 딛고 확대 개편



2014년 세월호 사태로 축소돼 열린 광주봉축행사

광주불교계의 2015년 봉축 계획이 수립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2월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 봉축예산과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다.

먼저 ‘2015빛고을관등회’라는 기본계획안은 ‘견우와 직녀의 생명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계획을 담았다. 지난 10월부터 구성되어 3개월 간 봉축기획단(단장 시각)이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에 부처님오신날을 상징하는 18m 장엄물이 설치되며 광주천 주변에는 전통과 생명을 상징하는 전통등이 걸린다.

전통등을 보급하기 위해 광주불교계는 10여 차례에 걸쳐 강습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월 16일에는 봉축법요식과 제등행진, 봉축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여기에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대동한마당에는 외국인문화페스티벌, 청소년문화페스티벌, 빛고을들차회 등이 열린다.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계층을 위한 문화행사가 광주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체험행사로 펼쳐지는 시민문화한마당에는 연꽃등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단주만들기를 비롯해 아시아의 여러나라 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불교단체와 사찰을 대상으로 공모행사도 진행된다.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예산으로는 3000만원이 확정됐다.

광주불교연합회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가 확정돼 행사준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빛고을관등회가 광주지역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2559년 부처님 성도재일 기념대법회’도 논의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두환 범종 두고, 군vs광주시 논쟁


장성 상무대 법무사에 걸린 ‘전두환 범종’

장성 상무대 설치된 범종(일명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에 대해 광주시와 육군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두환 범종은 전두환 前대통령이 1981년 상무대를 방문했을 당시 상무대 내 군 법당인 법무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범종을 기증하면서 생겼다.

이 범종은 지난 1994년 상무대가 광주 인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한 뒤에도 현 5·18공원 내 사찰인 무각사에 보관되다 2006년 철거되어 행방이 묘연했던 것이다. 2007년 9월 장성 상무대 법무사로 옮겨졌다.

광주시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이 광주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육군 측은 “광주시가 반환을 받으려면 소유권 입증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 “국방부와 조계종도 이 ‘범종’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아픔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이 무각사를 광주시에게 양도할 때 위임받아야할 시설 및 비품 현황에 ‘범종’이 포함돼 있다”며 광주시 소유권을 주장했다.

육군본부 측은 범종 반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권 의원과 협의에 나선 육군본부 관계자는 “상무대 근무지원단은 장성으로 이전 당시 비용이 부족해 범종 및 석탑을 차후 찾아가기로 했다”면서 “만약 광주시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려면 광주시 소유라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종’이 무각사와 함께 광주시로 이전된 것이라면 종단 및 송광사와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불교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권 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상무대 무각사를 방문해 ‘전두환 범종’의 설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련결사 진원지 강진 백련사, 일주문 낙성



백련결사의 진원지인 전남 강진 백련사는 12월 6일 일주문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련사 회주 여연 스님과 주지 일담 스님을 비롯해 강진원 강진군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와 3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백련사 일주문은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포식 목구조 맞배지붕의 전통건축물로 지어졌다. 백련사는 신라 문성왕 1년에 무염(無染)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 정암사 신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위촉



고령정보고등학교(구 광주소년원)는 12월 11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 신도 이미경 외 4인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3년 간 위원활동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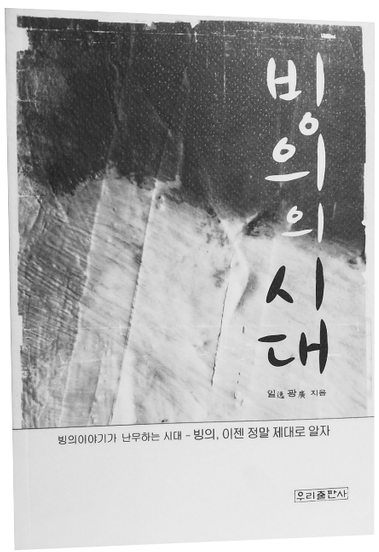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지암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소년원에서 명예부모 결연식과 맨토링활동, 장학금 지원, 음식지원 활동 등을 펼쳐왔다.

한편, 이날 청암사는 학예발표회를 맞아 소년원생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빙의환자를 위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 환자를 위한 일광逸廣 도인의 전언!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는 퇴마가 아니라 귀신을 천도遷度해 줌으로써 치료된다

사람의 병에는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으로 생기는 병,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병, 전생의 업 때문에 생기는 병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귀신이 붙거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8세 미만의 자폐증 환자*
- ▶ *8세 미만의 뇌성마비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